가피로 지킨 도량, 원력으로 다시 세운다

경북 산불 9개월, 현장을 가다

화재로 만세루 등 전소된 보광사
기적처럼 화마 피한 보물 극락전
무구 스님 "무심으로 복원 불사"

청송 · 글=여수령 기자, 사진=정현선 작가



청송 보광사는 지난해 3월 산불로 만세루 등 전각이 소실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기적적으로 화마를 피한 보물 극락전을 의지처 삼아 올해 복원 불사를 시작한다. 극락전 기단에 불길로 그을린 자국이 선명하다.



청송 보광사 주지 무구 스님.

그날 아침, 사찰 마당으로 날아 온 불탄 나무껍질이 전조였을까.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 소식에 귀 기울이긴 했지만, 먼 곳의 일이라 여겼다. 청송 보광사 주지 무구 스님이 예정됐던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간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안동으로 번진 산불은 10km를 날아 40분 만에 청송 지역을 덮쳤다. 이미 청송의 소방차들은 의성으로 달려간 뒤. 부랴부랴 극락전(보물)에 모셔진 부처님과 탱화를 이운했다. 석조아미타삼존불좌상 개금불사 회향을 앞둔 3월 26일이다.

"보광사가 전부 다 불탔다"는 전언에 부랴부랴 사찰로 돌아와 처음 마주한 건 전소돼 무너진 만세루(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와 요사채인 보본당. 그런데, 기적적으로 극락전이 연기 속에 모습을 드러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절로 나왔죠.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극락전에서 불과 세 걸음 떨어진 만세루가 전소되면서 불티가 법당 안쪽까지 날았는데도 무사했으니 부처님 가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잔불이 살아나지 않을까 걱정돼 밤새 사찰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음날 새벽엔 신도들 집을 찾았다. 집과 사과 저장 창고가 불타 임시 거처로 옮긴 신도들에게 사찰 김치와 쌀, 반찬을 나눴다. 밥차를 운영하는 다나 대표 탄경 스님과 지역 무료 급식 봉사에 나섰고, 청송군에 피해 주민을 위한 기금 2000만원을 기부했다.

보광사의 자랑이던 울창한 소나무들도 화마를 피하지 못했다. 밑동이 불에 탄 소나무들이 가파른 경사면을 따라 사찰 경내로 쓰러졌다. 결국 몇 그루만 남기고 모두 베어냈다. 화재 발생 9개월이 지난 12월 중순까지도 청송에는 피해목을 제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소나무를 지키려 간벌도 하고 무척 애를 썼는데 한순간에 다 사라졌어요. 오히려 베어내려 했던 활엽수들이 산을 지켜준 것을 보니, 무엇이든 집착 없이 대하고 무심(無心)으로 해야 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역 이웃들의 피해 복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무구 스님은 사찰 재건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교구본사나 전통사찰이 아니라 대중과 언론의 관심에서는 조금 비켜 있었지만, 그간 조계종과 전국비구니회, 유나선원 등에서 복구 기금을 비롯한 정성스러운 마음을 보내준 덕분이다. 보본당은 올해 초 착공 예정이고 만세루는 설계가 진행 중이다.

특히 조선 세종의 명으로 지어진 만세루는 건축적으로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역사·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구 스님은 보물 승격을 위한 학술세미나도 준비 중이었다.

"전각이야 새로 지으면 되지만 역사가 사라져 버린 것이 가장 안타까워요. 어르신들이 어릴 때 소풍을 왔고, 날씨 좋을 때면 둘러앉아 차담을 나누던 곳인데 추억의 장소가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예기치 못한 큰 재해에도 의연하게 대처해 온 스님이지만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9개월이 지난 지금도 만세루가 불타는 장면이 담긴 CCTV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무구 스님.

그럼에도 스님은 희망을 말한다. 잿더미 속에서도 도량을 묵묵히 지킨 극락전을 의지처 삼아, 재건 불사를 차근차근 진행할 것이다. 모든 것은 무너질 수 있어도 희망만큼은 끝내 타지 않을 것이므로.

주요 종단, 동지 맞아 팥죽으로 '자비나눔'

조계종, 종로경찰서 팥죽 전달
관음종, 전국 각지서 나눔행사
태고종, 시민에 가두 팥죽 나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2월 22일 공경현 종로경찰서장에게 700인분의 팥죽과 동치미를 전달했다.

불교 주요종단들이 동지를 맞아 팥죽 자비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2월 22일 서울 종로경찰서 4층 중회의실에서 공경현 종로경찰서장에게 700인분의 팥죽과 동치미를 전달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전달된 팥죽은 이른 아침부터 조계사 사부대중이 직접 끓인 것으로,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종무원들이 포장 작업에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팥죽은 종로경찰서 본서와 관내 지구대, 파출소에 고루 분배됐다.

진우 스님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있다. 올해는 국가적으로도, 종단적으로도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며 "특히 종단 청사 화재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 종로경찰서가 중심이 돼 많은 수고를 해주셨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종로구청에도 팥죽과 동치미 420인분을 전달했다. 팥죽은 종로구청 직원은 물론 구청 복지국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에게도 지원됐다.

관음종(총무원장 법명 스님)은 12월 22일 동지를 맞아 서울 종로 및 강원도 정선, 경남 마산, 진주 등 전국에서 동지 나눔 팥죽한마당 행사를 펼쳤다.

총무원장 법명 스님은 "인공지능이 세상을 주도하는 상황이지만 우리 세시풍속에 담긴 정(情)은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정신유산이다. 시민들도 팥죽으로 액운을 떨치고 힘찬 새해를 맞이하자"고 당부했다.

태고종 총무원(원장 상진 스님)은 12월 21일 동지팥죽 나눔행사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앞에서 진행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해 재경부장 효능 스님, 사회부장 법연 스님, 사서실장 도휘 스님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스님들은 친환경 그릇에 팥죽을 담아 오가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눴다. 상진 스님은 "묵은 해의 좋지 않았던 일과 감정 등은 모두 다 털어버리고 행복과 희망의 새해를 맞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신중일 · 김내영 기자

진우 스님, 대학생 불자에 장학금 전달

12월 23일 서울 조계사 담소서
대학생 불자 24명에 4600만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한 해 동안 청년·대학생 포교에 진력해 온 대학생 불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격려했다.

진우 스님은 12월 23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 담소에서 '2025 대학생 우수불자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25명의 대학생 불자에게 총 장학금 46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총무원 포교부장 정무 스님과 유주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중앙회장 등 대학생 불자 22명이 참석했다.

장학금 수여 대상자는 대불련 회원과 전국 사찰에서 추천을 받은 학생들로, 1인당 15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대불련 회장에게는 특별장학금 1000만원이 지급됐다.

진우 스님은 장학증서를 전달하며 "불교는 젊은이들이 스스로 평안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돕는 가르침"이라며 "여러분이 친구와 이웃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더 많은 이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학금을 받은 유 회장은 "1년간 중앙회장으로 활동하며 불자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다"며 "불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앞으로도 전법 활동에 힘쓰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정인 수습기자

사찰음식 명장 스님들 "지도자 양성 필요해"

총무원장 진우 스님 예방서
청사 복구기금 1000만원 전달

조계종 사찰음식 명장 스님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화재 복구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이날 명장 스님들은 사찰음식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도자 양성과 선명상 연계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제기했다.

12월 23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 담소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조계종 사찰음식 명장으로 지정된 선재 스님, 계호 스님, 적문 스님, 대안 스님, 정관 스님, 우관 스님과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법오 스님이 참석했다. 진우 스님은 기금 전달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청사를 잘 복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사찰음식 명장 스님들이 결성한 '사찰음식모임'의 회장을 맡은 정관 스님은 사찰음식 대중화·세계화를 이끌어 갈 후학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관 스님은 "사찰음식은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돼 2010년 뉴욕에서 알리며 무에서 유를 창조해 오늘에 이르렀다"며 "이제는 연구와 검토를 거쳐 후배 스님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강의 방식이나 조리 테크닉 등 교육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며 "명장 모임을 중심으로 문하생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명상과 사찰음식을 연계한 프로그램 구상도 제안했다. 정관 스님은 "조계종에서 제시한 '108가지 선명상 프로그램'에 다양한 음식 명상이 담기지 않아 아쉽다"며 "선명상을 접목한 음식 명상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구성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계종 차원의 사찰음식 명상 시스템을 구축해 후배 스님들도 함께할 수 있는 통합적인 틀이 만들어진다면 사찰음식을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송정인 수습기자



